



2010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전을 하루 앞둔 9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이동국(왼쪽)과 김정우가 패싱게임에서 공을 얻기 위해 서로 경합하고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D-3

쇼트트랙 계주 '변칙작전'으로 승부

1~4번 주자 역할 달라…순번 배치 '1급 비밀'

"상대팀들이 작전을 알고도 못 이기는 게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입니다"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 까지 총 17개의 금메달을 합작하며 명실 공히 '세계 최강' 전력을 입증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1994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4회 연속 계주를 토리노 대회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았다.

여자 대표팀의 라이벌은 역시 중국이다. 왕명과 저우양 등 정상급 선수들을 앞세운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한

국 태도'를 목표로 전력분석관을 통한 한국 여자팀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자 계주의 '금빛 메달 완성'은 변칙작전에 달렸다. 계주 경기에 나서는 인원은 4명으로 1~4번 주자까지 역할도 다르다. 보통 1, 2번 주자는 계주에서 총 다섯 바퀴를 돌게 되며 체력소모가 많아 치고 나가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 대신 아웃코스와 인코스 출발과 몸싸움에 강한 선수들이 3, 4번 주자를 맡는다.

외국팀들은 기선 제압 차원에서 강자들을 1, 2번에 배치하고 3, 4번 주자들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대표팀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해 한국은 선수 교대 타이밍에 승부수를 걸기로 했다. 보통 1, 2번 주자들이 두 바퀴씩 돌고 나서 다음 주자와 터치를 하지만 한국은 1, 2번 주자들이 1, 5바퀴씩만 돌고, 3, 4번 주자들이 두 바퀴씩 이어서 도는 '변칙 작전'을 세웠다.

3, 4번 주자는 아웃코스 주월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내세우고, 그중에서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2번 주자를 맡는다. 2번 주자는 최종 결승선을 통과하는 믿음 체력안배가 중요해 금빛 작전의 핵심이 된다. 하지만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1급 비밀'이다.

허정무號 골 사냥은 계속된다

동아시아축구, 오늘밤 중국과 2차전 격돌

이동국·이승렬·이근호 등 선발 출격 대비

한국 대표팀이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중국과 2차전에서 다시 골 사냥에 나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10일 오후 7시 15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회 풀리그 2차전에서 중국과 맞붙는다.

중국은 약체 홍콩보다 수비진의 투지와 조직력도 한 수 위로 평가되며 때문에 경쟁하는 한국 공격진들에는 더 의미있는 풀을 터뜨려 코팅스태프의 눈도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선봉에는 일간 지난 7일 홍콩을 상대로 4년 끝은 A매치 골침복을 끝 이동국(31·전북)과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신예 이승렬(21·FC서울)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호(25·이와타)는 다리 근육이 끊이는 등 컨디션 난조를 겪고 홍콩과 경기에 결장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승렬 대신 출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커로 공격의 활력을 더하는 노병준(31·포항)도 홍콩과 경기에서 뒤늦은 A매치 데뷔골을 신고한 여세를 몰아 중국전에서도 끊임은 활약을 보일 테세다.

노병준은 "이번 대회에서는 홍콩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터뜨리는 골이 진짜 골"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남아공이나 스웨덴 전지훈련 때는 평가전이라서 그런지 A매치에도 동료간 경쟁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은 실전이니까 경쟁은 없고 이기는 데 동참한다"며 팀 분위기를 전했다.

오정은(25·울산)과 김보경(21·오이타)은 좌우 날개를 폭파 중앙 미드필드에는 구자철(21·제주)과 김정우(28·상무)가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23·이와타)와 오범석(26·울산)은 좌우 사이드백을 맡고 조용형(27·제주)과 이정수(25·가시마)가 센터백으로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전의 선수기용을 고려할 때 꽈파휘(29·교토)가 선



발 중앙수비수로 나오고 이정수가 오른쪽을 대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 성인대표팀은 지금까지 중국과 27차례 맞붙어 16승11무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태국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패한 이후로 한 차례도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어 공한증(恐韓症)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가 동아시아의 자존심을 거는 한판인 만큼 중국을 완파해 공한증의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심산이다.

/연합뉴스

목포축구센터-신신상사(주) 스폰서십 협약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9일 신신상사(주)와 공식 후원을 위한 스폰서십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신신상사는 올해부터 1년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현금(3천600만원), 현물(6천400만원)로 모두 1억원 상당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1천800만원씩 지급하며, 현물(스포츠용품)은 축구센터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목포축구센터는 '2010 제38회 아시아학생(U-18) 선수권대회'의 후원사 자격으로 신신상사 브랜드를 홍보한다.

/서부취재부=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김연아 경기 암표값 '천정부지'

최고 11배, 550만원까지 올라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출전하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의 암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의 입장권은 D석 50달러(약 6만원)~A석 420달러(50만원)이고, 프리스케이팅은 C석 150달러(약 18만원)~A석 450달러(약 54만원)다. 그러나 피겨 입장권은 일반 판매 시작과 함께 금세 매진되며 끝났다.

또 가격이 조금 더 산 쇼트프로그램 B석(250달러)은 5.4배나 경총 원 1천344달러에 거래됐고, 밴쿠버 지역의 한식당에

행하고 있다. 피겨 종목의 우승자를 볼 수 있는 프리스케이팅은 최고 11배가 넘게 뛰었다.

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ebay.ca)에 입장권 소유자들이 경매에 올린 가격은 쇼트프로그램이 A석(420달러)이 1천736달러(약 208만원)이고, 프리스케이팅 A석(420달러)은 3천360달러(약 403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은 약 4.2배, 프리스케이팅은 7.5배나 오른 가격이다.

또 가격이 조금 더 산 쇼트프로그램 B석(250달러)은 5.4배나 경총 원 1천344달러에 거래됐고, 밴쿠버 지역의 한식당에

는 프리스케이팅 입장권을 무려 11배나 오른 5천 캐나다 달러(505만원)에 팔렸다는 광고 전단도 등장했다.

입장권 재판매에 나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밴쿠버의 한 여행사는 프리스케이팅 A석 입장권과 동계올림픽 티켓 B석 입장권을 합쳐 2천600 캐나다 달러(약 286만원)에, 프리스케이팅 B석과 티켓 B석을 둘어서 2천100 캐나다 달러(약 230만원)에 내놔 경매 사이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팬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욱이 김연아의 경기가 24일(쇼트프로그램)과 26일(프리스케이팅)에 열리는 터라 앞으로 보름 이상 경기 날짜가 남아 있어 암표의 가격은 더욱 뛰어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유령표'로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수)

▲09/10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금호생명>(16 : 50·SBS 스포츠) <삼성 : 오리온스>(18 : 50·MBC ESPN)

▲2010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한국 : 중국>(18 : 50·KBS2·MBC·MBC ESPN·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T&G : LG>(18 : 50·SBS 스포츠)



〈주현정〉 〈고광구〉

현재 남자 역도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고광구 감독은 광주은행 출신 국가대표를 무려 5명이나 배출한 우수지도자로서 지도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양궁 주현정 '체육상 대상'

여자 양궁 국가대표 주현정(28·현대모비스)이 제5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을 받았다. 또 광주은행 역도팀 고광구 감독은 지도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현정은 9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유통파크 티켓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주현정은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다.

현재 남자 역도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고광구 감독은 광주은행 출신 국가대표를 무려 5명이나 배출한 우수지도자로서 지도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10일(수)

▲09/10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금호생명>(16 : 50·SBS 스포츠) <삼성 : 오리온스>(18 : 50·MBC ESPN)

▲2010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한국 : 중국>(18 : 50·KBS2·MBC·MBC ESPN·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T&G : LG>(18 : 50·SBS 스포츠)

근린사회복지공동체(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전/폐지(m) 금액(원) 회자기 비고

광주 북구 2971/607 16297원 7억 원

광주 서구 1897/105 10546원 4억 원

광주 동구 415/2244 16276원 11억 원

광주 북구 1470/2473 37956원 12억 원

광주 서구 172/304 3828원 1억 원

광주 동구 101/78 17056원 1억 원

광주 북구 1875/581 41952원 2억 원

광주 서구 374/517 42444원 2억 원

광주 서구 100/10 1000원 1억 원

광주 서구 176/614 52954원 3억 원

광주 서구 1058/592 15850원 1억 원

광주 서구 2980/3083 1987원 75원

광주 서구 100/10 1000원 1억 원

광주 서구 100/10 10